

5·18 재평가·현안사업 탄력 광주·전남에도 ‘봄’이 왔다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보수정권에서 지속됐던 ‘호남 인사 및 예산 소외’는 사라지고 그동안 담보상태였던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80년 5·10 민주화 운동의 재평가가 꼽힌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추진되고, 헬기사격과 암매장 등 미안에 그쳤던 5·18 진실규명에 다가서는 등 ‘5월 광주정신’의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앞두는 등 정부의 관심 속에서 ‘광주’의 한을 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도 문 대통령 취임 후 추진되고 있다.

‘호남 인사 확대’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광주·전남 출신 장관급이 5명이 포함됐고, 차관급까지 포함하면 23명의 호남 인사가 포진했다. 이는 행정부 전체 인사 중 28%, 영남 27명(33%)에 비해서 적지만,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광주·전남 미래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들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국비예산 확보에서도 드러난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 1조9743억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헬기사격 등 진실규명 활발

지긋지긋 인사·예산 소외 사라져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확정

한전공대 설립 추진 등 본격화

경전선 고속화 등 ‘에타’ 발목도

을 확보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고, 전남도도 예초 정부예산안 보다 9%가 증가한 6조16억원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확정과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한전공대 설립 등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담보 상태였던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는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이 1000억원이 증액됐다. 한전공대 설립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유치 경쟁 속에 용역이 진행중이다.

또한, 광주시의 경우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전장산업 기반 조성 등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전기차 융합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창출 ▲광주 솔로몬로파크 건립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원도심 재생사업 ▲인공지능(AI) 중심 창업단지 조성 ▲포토닉스케어 신산업 육

성 등 12개 사업은 국비를 지원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도 권역별 특화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과 생물의약, 자동차 부품 평가·연구 지원동 가동,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활로 모색 사업 등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추진중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가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비 115억을 확보했고,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지원센터와 뿌리산업 기술지원센터,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지원센터가 착공됐다.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단지 조성도 문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되면서 국비 300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도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광주역 아시아 문화 관문 조성, 경전선 고속화 등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며,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이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한 만큼 현 정부의 호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현안사업 해결에 긍정적이다”라며 “하지만, 일부 대통령 공약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익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인사 ‘약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추진되고 무안공항 KTX 경유가 확정되는 등 광주·전남 지역은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함평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장흥 출신 임중석 비서실장과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 <청와대 제공>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시진핑 회동說

다렌서 국비 회담 가능성

김정은 ‘중국 카드’ 주목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전용기편으로 중국 다렌(大連)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전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인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또한 자국산 항공모함의 시험운항 행사 참석을 위해 다렌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져, 양국 최고 지도자의 회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북측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최고위급 인사는 지난 7일 전용기 편으로 다렌 공항에 도착해 중국 측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화권 매체 뤼웨이(多維)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와 동일한 기종인 일류신 62형 비행기가 고려항공 마크가 없는 상태로 다렌 공항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시 주석이 자국산 항모의 시험운항 참석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다렌을 방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로 추정되는 북한 항공기도 다렌에서 목격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말에

북한 최고위급 인사 중국 방문



이어 다시 방중했다면 다렌에서 비밀 회담이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지체 없는 영구적 폐기까지 요구하고 나

섬에 따라 다름해진 북한이 다시 한번 ‘중국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베이징 방문을 통해 남북, 북미로만 풀리던 북한 비핵화 협상의 균형을 다시 맞춘 바 있다. 이번엔 또다시 북중 정상 회동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중국을 우군으로 북미 협상의 균형을 이루며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날 오후 북한 요인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전용기가 이륙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다렌 공항에서 북한 요인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전용기가 중국 측 관계자의 배웅을 받으며 이날 오후 4시 20분(이하 일본시간, 다렌 현지시간 오후 3시 20분) 이륙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북한 요인이 이용하는 전용기가 이날 오후 다렌 공항을 이륙했다”며 “탑승자는 목격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1년”...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초심 지켜 나가자” 다짐

민생 추경 지급 국회서 논의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뚫도록 노력했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쉽게 넘어선 1년이였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취임 1년을 맞아 국

무위원회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며 “다들 열심히 해주셨지만 마음이 헤아리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는 심의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민생 추경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사안과 연계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국회에 하부

밸리 책임 있게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국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은 3국의 특별성명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다시 쓰는 5·18-안병하 경무관 ▶10면

전라도 천년 인물-하서 김인후 ▶18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8 PINK RUN GWANGJU

상무시민공원
2018년 5월 27일 09시30분 출발

종 목 | 10km / 3km
참 가 비 | 1만원(전액 한국 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 3,000명
기 념 품 |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 핑크런 사무국(1688 9744)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pinkcampaign.com
접수시작 | 3월26일 ~ 선착순 접수

A MORE BEAUTIFUL WORLD
AMORE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